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개혁을 포기했는가?



전용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은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핵심 과제를 담아내지 못한 채, 알맹이 없는 선언적 나열에 불과하다. 정부가 표방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전생애 기본돌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이번 로드맵은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돌봄 연구자들의 모임인 '넥스트케어(nextcare)'도 주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엇보다 돌봄의 핵심 동력인 제공기관과 인력, 예산 확보 계획이 미흡하다.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 등 '돌봄 사막' 지역의 인프라 확충 방안은 보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 필수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빠져 있다. 실질적인 돌봄

통합이 아닌 '분절적 확대'에 불과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게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조사와 관정 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쪼개져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반드시 단행해야 할 제도적 개혁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통합돌봄을 '긴급과제'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혁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2029년이나 2030년으로 정권 말기로 뒤로 미룬 것은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너무 안일하고 정책 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진국에서도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장기간이 걸렸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압축적 근대화를 겪었으며, 돌봄 문제 역시 어느 국가보다 집중적이고 심각하게 폭발하고 있다. 간병 부담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참혹한 간병 살인, 돌봄 부족으로 인한 방임과 노인 자살 증가 등의 비극이 속출하는 현실점에서 선진국의 속도를 이유

로 정책 도입을 늦추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조직 운영의 난맥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국'을 신설하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오히려 반대다. 벌써부터 기존의 노인정책국 등과의 협업조차 어려워한다는 말이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하며 부처 내 칸막이조차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면 대체 왜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람 중심의 돌봄은 분절된 서비스의 단순한 물리적 합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돌봄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인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작금의 로드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안정적인 예산 투입과 인프라 구축, 뼈를 깎는 제도 개혁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통합돌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4·7세 고시'는 끝났다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몇 해 전 주말 오전이었다. 학원가가 한가할 시간인데도 유독 그 학원 앞만 북적였다.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갔고, 나 역시 아이의 레벨테스트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아이는 금세 장난감 얘기부터 꺼냈다. 그만큼 아이는 어렸고, 시험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초등학교에 간 뒤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영어 학원도, 수학 학원도 입구에는 늘 레벨테스트가 있었다. 학원만 바뀌었을 뿐, 아이들은 분반과 선발의 문턱 앞에서 계속 경쟁해야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조기 경쟁을 부추겨 온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방향에는 공감한다. 유아를 시험대에 세우고, 그 결과로 줄을 세우는 관행은 분명 과했다. 문제는 이 조치만으로 경쟁까지 멈출 수 있는냐는 점이다. 경쟁이 계속되고 공교육이 그 수요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한 사교육은 멈추기보다 우회로를 찾고, 결국 더 음지로 스며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현장도 비슷한 방향을 가리킨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29%였다. 하지만 서초구는 56%, 강남구는 52.5%로 절반을 넘었고, 강북구는 14.7%, 중랑구는 13.7%에 그쳤다. 경제적 격차가 곧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

니라는 얘기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도 곱씹어볼 만하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줄었고 참여율도 75.7%로 4.3%p 낮아졌다. 겉으로 보면 사교육 부담이 다소 꺾인 듯하다. 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사교육은 금지한다고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를 움직이는 것은 시험 자체보다도 뒤쳐질 수 있다는 불안이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사교육만 단속해서는 부족하다. 부모들이 왜 이렇게 이른 시기부터 불안해하는지, 왜 아이 손을 잡고 학원 문앞에 서게 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4세 고시'를 멈추자면, 이제는 시험만이 아니라 그 경쟁을 키우는 구조까지 함께 바꿔야 한다.

/l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8일 (음 1월 30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쥐** 48년생 여행 가고자 하는 곳에 도적이 들끓습니다. 60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72년생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때입니다. 84년생 원대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 49년생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61년생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됩니다. 73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85년생 지나친 욕심은 결국에 화를 부릅니다.
- 호랑이** 50년생 가는 곳마다 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2년생 일은 풀리지 않고 얽힙니다. 74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마세요. 86년생 조그만 소망은 이루어지니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 토끼** 51년생 좋은 사람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3년생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건강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87년생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말** 52년생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고 실천하세요. 64년생 자식들에게 안부 전화하도록 하세요. 76년생 친척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합니다. 88년생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세요.
- 뱀** 53년생 귀하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65년생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경쟁자 나타납니다. 77년생 금전, 직장, 이성운 모두 불리합니다. 89년생 말 실수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 말** 54년생 삶을 재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66년생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8년생 의외의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90년생 취업운이 없는 하루입니다.
- 양** 55년생 고집을 버리고 행동하는 것이 길합니다. 67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9년생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91년생 어린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 원숭이** 56년생 두서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68년생 혼자 힘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겠습니다. 80년생 참고 인내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 닭** 57년생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69년생 재발된 병으로 가족에게 근심 주게 됩니다. 81년생 마음에 안정이 없고 중심이 없어 힘든 하루입니다. 93년생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 개** 58년생 다른 생각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하세요. 70년생 노력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82년생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오는 운입니다. 94년생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일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 돼지** 59년생 밀려오는 부채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71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83년생 활암이나 스트레스를 주의하세요. 95년생 더 가지려 하지 말고 현재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김상회의四季 기도터

지난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돼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점을 보는 외국 젊은이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일종의 문화체험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만큼 기도에 진심인 민족이 또 있을까? 기도터 역시 전 국토의 70%가 산이다 보니 천년고찰은 물론이요, 산등성이나 골짜기마다 소소한 암자까지 기도 흔적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하물며 동네 어귀나 마을의 오래된 나무까지도 서낭당이라 하여 잠시를 지나가더라도 마음을 모아 빌고 지나가곤 했다. 산도 많지만, 물도 많아 산 높고 물 맑은 특성상 민간신앙으로서 산신 신앙과 용신 신앙의 강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영험한 산과 강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다.

그러한 산 중에 으뜸은 계룡산이요, 물줄기 중의 으뜸은 한강이 아닐 수 없다. 삼천리 강산 그 어디라도 기도 터로서 명성이 빠지는 곳은 드문데, 사람들은 산중 어디라도 기괴한 모습을 한 곳이 있으면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렸고 계곡 어디라도 물이 흘러 폭포나 소를 이루고 있으면 반드시 치성을 드렸다. 알려진 바로는 삼국시대 때 신라의 화랑들은 명산대천을 다니며 무예를 닦고 기도를 드렸다고 하며 스님이나 도인들은 물론 무속인들 역시 자신들만의 기도처를 발굴하여 기도했다. 일반 가정에서는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 올려놓고도 새벽을 보며 가족 건강 등 소원을 빌지 않았던가? 각별히 효험이 뛰어난 테마 기도처도 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갖바위, 급한 문제 해결은 청도 운문사 독성각, 입시양평을 위한 기도는 공주 신원사이다. 또한, 무슨 소원이든지 간에 한 가지는 꼭 들어준다는 남해 보리암 등 처처에 나름의 내공을 자랑하는 기도처가 나열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겨 학습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레코드를 갱신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5	3		1
		8		3	2
					7
		9	4	3	1
		5			8
	1	4		5	9
				7	
					9
9	3	7			8
6			9	4	
					8

6		1		6		8	3
		9					
		1		2			7
8	9		2				6
		7				3	
6				3		5	9
2		6		1			
				4			7
3	1			8		5	

8	8	2	7	2	6	1	9
7	1	9	8	2	9	2	6
6	2	9	5	1	8	8	7
8	9	2	6	9	2	7	1
2	7	6	2	8	1	9	9
9	8	1	9	8	7	6	2
9	9	7	2	6	2	8	1
2	2	8	1	7	8	9	6
1	6	8	8	9	9	2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7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